

재미있는 새 이야기



방울새

최 무 영 < 한국조류보호협회 부회장 >

유부남만 골라 노골적으로 유혹하는 바람둥이

섹스를 생식목적이 아니라 쾌락의 도구로 사용하는 유일한 동물은 인간이라는 것이 이제까지 동물 생태학계에서 통용되는 정설이었다.

그러나 새들 가운데에도 1년에 한번으로 고정된 교미 기간에 제한받지 않고 1년 내내 짝지어 교미하는 새들이 있다.

마을에 가까운 논과 밭, 해안 지방의 소나무숲에서 방울을 굴리는 듯한 고운 소리로 노래하는 방울새의 한 종류가 바로 전천후 섹스의 주인 공이다.

유럽방울새라는 이름으로도 불리우는 붉은 가슴 방울새들의 미스들은 유부남 호리기의 명수로 모든 방울새 아줌마들의 요시찰 대상이 된다.

다소 다리품을 팔더라도 여기저기 다녀보면 그럴 듯한 총각들도 만

날 수 있을테고, 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시뵈거리가 없는 홀아비도 만
날 수 있을텐데 당돌하기 짝이 없는 아프레 곁들은 한사코 유부남만 노



리고 덤벼든다.

하기사 인간 세상에도 유부남을 '유달리 부드러운 남자' 니, '유난히
부담없는 남자' 니 해서 혼전의 엔조이 상대로 선호하는 처녀들이 있다
니까 방울새 처녀들의 '아저씨 집착증'을 이해 못할 바는 아니나 가정
과괴범이라는 오명까지 뒤집어 써가면서까지 유부남을 유혹하는 까닭
은 무엇일까.

인간의 경우라면 유부남들이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고, 파트너에 대한
배려가 세심한 무드파이며, 테크니션이라는 점에 끌린다는 등 허튼 소
리라도 늘어놓겠지만 방울새 아저씨들에게는 그런 매력이나 장점도 없
다.

장점은 커녕 자칫하면 부부의 무지막지한 합동 공격에 상처만 입고
무참하게 쫓겨날 우려마저 농후한 위험한 상대를 기를 쓰고 찾아 나서
는 행동의 기제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도 알려진 바가 없다.

앞에서 얘기 했듯이 유럽방울새들은 1년 내내 짝지어 교미하는 자연
의 특혜 때문에 항구적인 결속 관계를 유지하며 살아간다.

유럽방울새는 국부적인 철새로서 가을과 겨울철에 일정한 목적지 없
이 장거리 또는 단거리로 들판을 돌아다니면서 지내는데 이 무렵에 떠

돌이 처녀 방울새가 나타나 평화로운 가정을 품비 박산 내곤 한다.

처녀 방울새는 등지의 주인이 마음에 들면 수컷의 주위를 빙빙 돌아 관심을 끈 다음 진한 살색의 육감적인 다리를 내보이며 깡충깡충 뛰거나 유난히 밝아 보이는 날개를 세워 뽐내는 등의 구애 표시를 하다가 수컷의 반응이 무덤덤하다 싶으면 최후의 방법인 웅크리는 자세를 반복적으로 취해 보이며 노골적으로 유인(Attraction)한다.

이때 대개의 수컷들은 굴러 들어온 떡(?)을 차버릴 수 없어 요란스럽게 환영의 뜻을 표하지만 일단 마누라의 눈치를 봐야 한다.

첩 만들어 등지 지어 주고 두 집 살림

자고로 영웅호색이라고 해서 잘난 사람일수록 여자를 밝히는 법이다. 백제의 마지막 임금 의자왕이 3천 궁녀를 거느렸다는 고담은 그가 대단한 호색가였음을 강조하기 위해 부풀린 얘기겠지만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뛰어난 명군으로 꼽히는 세종대왕께서도 무려 29명의 비빈을 거느렸다니 인물의 크기와 여자 관리능력은 정비례하는 모양이다.

뜻밖의 황제에 신이 난 방울새 아저씨는 처녀 방울새의 구애 동작에 화답하여 떠들썩한 세레나데와 인사로 정위 자극(Orienting gatimuli)을 표시한다.

그러나 아내가 극도의 불쾌감을 표시하며 침입자에 대해 신경질적인 태도를 보이며 싸움을 걸거나 상대의 어프로치가 별로 마음에 들지 않으면 아내와 합세해서 침입자를 쫓아내지만 상대가 매우 고풍적이거나 아내의 태도가 사생 결단으로 단호한 태도를 보이지 않으면 고미를 하고 나서 새로운 등지를 지어 준다.

이 때 처녀 방울새의 태도는 눈여겨 볼 만한데 부부의 집중적인 공격

에도 웬만해서는 도망치거나 반항하는 법이 없다. 잠시 물러났다가는 다시 등지 앞에 나타나 열렬한 동작으로 구애춤을 춰 보이는 것을 오랜 시간 반복하는 것이다.

몸길이 약 18cm의 그리 크지 않은 몸뚱이 어디에 그런 끈기와 열정이 숨어 있는지 모를 정도로 뜨거운 프로포즈를 받은 방울새 아저씨는 아내가 치열한 접전에 지쳐 숨을 돌리는 사이에 '날 잡아 잡수' 하며 엉켜 붙는 처녀 방울새를 강간한다.

그러나 외형상 강간의 형식을 취할 뿐이지 실은 처녀 방울새의 적극적인 헌신과 방조에 의해서 이뤄지는 혼외 정사이다. 왜냐하면 덜 기계화(Mechanized)되고 불완전한 생식기 구조를 가진 새들의 경우 파트너가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는 총배설강을 암컷의 그것에 접촉시킬 수가 없기 때문이다.

이상한 것은 아내 방울새의 행동이다. 남편이 침입자를 상대로 갈 데까지 가버리고 나면, '애고, 내 팔자야.' 하며 땅이 꺼지도록 한숨만 내쉴 뿐 더이상 쫓아낼 엄두를 내지 못한다는 점이다.

이런 통과 의례를 거쳐 작은 부인으로 들어앉은 처녀 방울새는 있는 아양. 없는 애교를 총동원해서 수컷의 마음을 사로잡는데 전력한다. 일단 수컷의 신임을 받으면 슬슬 조강지처를 무시하는 행동을 시작하고 때로는 싸움까지 건다.

물론 방울새 아저씨는 처첩의 싸움에 끼어드는 법 없이 저만치 비켜서서 구경만 하는데 제아무리 박터지게 싸운다해도 누구 하나가 보따리를 싸들고 집을 나갈 일은 없으므로 느긋하게 처첩의 총애 다툼을 지켜보는 것이다. ♪